

이코노 & 비즈 피플

국내 최고 힐링 카운티 '웰파크시티' 조성 이 중군 대표

“건강한 휴식 꿈꾸는 가족형 휴양타운”

장흥 출신 실버타운 사업의 '선구자'
고창 석정온천에 자연치유 공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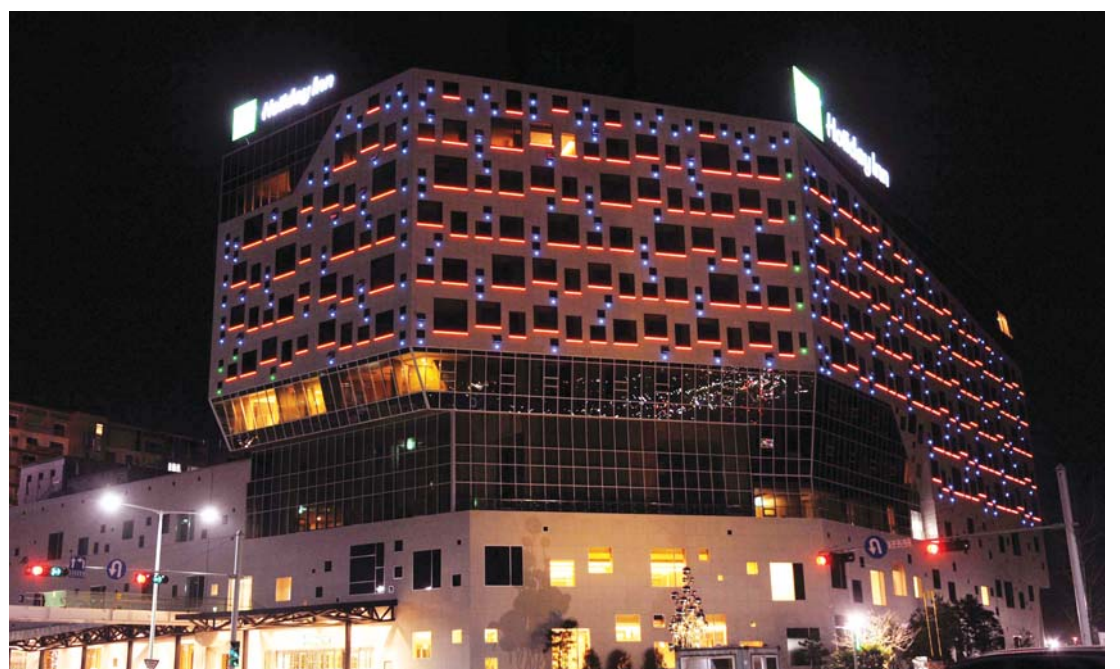
이 구상하면서 은퇴자 마을 부지를 물색했는데 고창 석정온천지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이 좋은 데다 고인돌, 선운사, 고창읍성, 청보리밭 등 노년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문화·관광지가 풍부한 게 매력입니다.”

고창 석정온천지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게르마늄 온천이나 온다. 이 온천은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 또 주변에 편백나무와 소나무 숲이 형성돼 있어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다. 여기에 건강한 바닷바람이 풍부해 자연치유를 돕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흥 출신인 이 대표이사는 광주 일고와 조산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1981년 국내 최초 대장·항문병원인 서울송도병원을 설립했다. 1998년 국내 첫 도심형 실버복지시설 '서울시니어스타워'를 설립, 현재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자 실버타운 사업의 선구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5년간 실버타운을 운영해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노하우와 30년 전통의 '서울송도병원' 의료시스템이 더해 국내 최고의 힐링 카운티(healing county)를 조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주)와 서울송도병원을 경영하는 이중군(60) 대표이사가 전북 고창에 개인 맞춤형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갖춘 가족형 시니어리조트인 '웰파크(Wellpark)시티'를 건립하고 있다.
웰파크시티는 고창 석정온천지구 154만㎡(47만평)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18홀 골프장을 비롯해 자연치유형 펜션단지, 노인복지주택, 게르마늄온천스파, 관광호텔, 온천휴양병원, 요트장, 승마장 등 여가생활과 휴양·

문화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자연치유 커뮤니티 공간이다.
우선 내년 여름 오픈하는 18홀 골프장과 함께 지난 10월 분양에 들어간 골프빌라 '석정힐스'는 199.24㎡(복층형), 198.69㎡(단층형), 158.26㎡, 117.18㎡, 85.61㎡로 구성된 정주공간이다. 건강펜션 '힐링카운티'는 132.2㎡, 70.47㎡, 61.92㎡, 34.29㎡, 33.66㎡로 형성돼 있고, 별장이나 관광·휴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곳에는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황토벽돌과 황토기와, 편백나무 등 친환경 소재의 실외마감재를 쓰고 황토타일, 천연한지 등을 실내 마감재로 사용한다. 또 건물 주변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해 입주자들의 면역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심형 노인휴양타운을 끊임없이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 10일 오픈

지하 3층 지상 10층 초현대식
광주 상무지구의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가 오는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홀리데이인 광주'는 세계적인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의 브랜드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는 프레지던트 스위트와 한실 스위트 등 12개 특실을 포함해 총 205개의 초현대식 객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800석, 500석, 200석 규모의 대연회장 5개와 소연회장 10여개가 운영되며, 레스토랑과 바, 비즈니스센터, 실내수영장, 스파 등을 포함한 최신 휘트니스 센터를 갖췄다.
특히 레스토랑 '모래시계'에서는 전통 웨스턴요리와 한국 음식을 골고루 즐길 수 있으며, 프레지던트 스위트로도 활용되는 10층의 상설라운지는 투숙객들을 위해 온

종일 커피와 스낵을 무료로 제공한다.
홀리데이인 광주 관계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은 광주시청에서 5분, 광주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시설과 서비스에서 차원이 다른 품격으로 광주에 호텔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동차 한일전 현대기아차, 도요타·닛산 이겼다

기아차 스포티지R·K5 '2011 iF 디자인상'



자동차 한·일전에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닛산 등 일본차를 이겼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은 세련된 내장과 뛰어난 엔진, 우수한 조작성 등으로 닛산의 쥬크를 완파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6일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티트(AutoBild)'가 한·일 대표 차종 7개를 비교해 2회에 걸쳐 최근 연재한 '한국 대(對) 일본 승용차 결투' 특집기사에서 일본에 3승2무2패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아우토티트의 자동차 전문 평가원이 11월 한달간 내·외장 및 차체, 구동계, 안락성, 주행성, 경제성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부문별 평가 대상은 현대차 i10과 스즈끼 알토, 현대차 i20과 마쯔다의 마쯔다2, 현대차 ix20과 혼다 제즈, 현대차 쏘울과 닛산 쥬크, 기아차 쏘울과 닛산 쥬크, 기아차 씨드와 도요타 아우리스, 기아차 스포티지와 도요타 라브4 등 총 7개 차급이다.
결투에서 현대·기아차는 i20, 쏘울,

씨드가 이겼고 ix20, 쏘울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기아차 쏘울은 세련된 내장, 우수한 시계성 및 조작성, 충분한 내부공간, 뛰어난 엔진을 높이 평가받아 닛산의 쥬크를 16대 13으로 완파했다. 씨드는 안락감, 주행 안정성, 내장 조립 우수성 등에서 앞섰고, 현대차 i20은 세련된 스타일, 충분한 내부공간, 깔끔한 내장, 조작성 우수성, 우수한 서스펜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제품 디자인 부문에는 43개국 2756개의 제품이 출품돼 경쟁이 치열했으며, 이 중 16개 분야 993개 제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8~12일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기획전'을 연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기획전은 광주·전남, 광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19개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주요 참가 업체는 기름이 잘 튀지 않는 불판 '안타지

오'를 개발한 '정명하이텍', 원적외선을 방출해 항균작용과 혈액순환을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이불을 제조하는 '터진' 등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참여 업체에 판매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고객 호응도가 좋고 매출 실적이 높은 상품에는 백화점 입점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몸에 해로운' 술·담배 소비 줄었다

3분기 3조4900억...전체소비 2.35% 사상 최저

소비생활에서 술과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류·담배 소비액(계절조정)은 3조4900억원으로 국내 소비지출 148조6000억원의 2.35%를 차지했다.
주류·담배 소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 6%를 넘었으며, 1975년 4분기에는 8%대에 달할 정도로 한때 우리 국민의 주요 지출 품목이었다.
당시로서는 식료품·음료(37.03%), 의류·신발(10.91%), 음식·숙박(10.22%) 등 '의식주' 다음으로 큰 비중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줄어든 술·담배 소비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래 가장 작아졌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술·담배 관련 지출은 그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결과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술·담배의 실질 지출액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지출이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국내 희석식 소주와 맥주 출고량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89만 9000㎏과 138만 8000㎏로 작년 동기 출고량의 95.9%와 98.2%에 그쳐 감소세를 나타냈다.
담배 소비와 관련하여도 KT&G 관계자는 “매년 초 금연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에 대한 염려로 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몸에 해로운' 술·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의료비 지출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의료·보건 항목 지출액은 3분기 10조 6000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었다.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와 더불어 사상 최고치(6.8%)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953.63 (-3.62), 코스닥지수 502.54 (+0.41), 금리 (국고채 3년) 3.11% (-0.01), 원·달러 환율 1,133.20원 (-5.30)

Large advertisement for health services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text: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곳",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알레르기성 비염 코피·축농증",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모발이식·지방흡입",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 "강남 피부과 비노기과 의원", "삼선의원", "서울 휴신경외과" etc.